

업그레이드 불사 시동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회, 구인사 유물전시관, 산내연수원 수련원 등 종단 차원의 큰 불사를 앞두고 있는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이 부처님 오신날 이후 대작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종단들은 이 불사를 종단 결속력 강화와 종단내 분위기 전환, 종단 위상 변화 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할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회관 불사계획을 내놓았던 태고종은 6월 11일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19개 시도교구 소속 스님으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앞서 5월에는 연건평 1천6백평 규모의 회관 2차설계에 착수했다. 설계안이 확정 되는대로 이미 확보해놓은 30억원의 국비와 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불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1960년대 태

태고종 11일 전통문화진흥관 건립위 발족
천태종 구인사 유물관 설계승인 등 절차 마쳐
진각종 경주 산내연수원 시설확충 본격화

고사현 조계사에 총무원을 둔 이후 40여년만에 '종로시대'를 다시 여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내년 전승회관을 완공하면 태고종은 한국불교 양대산맥을 이루는 조계종의 이웃으로 등장, 한국불교의 중심에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불사를 통해 종단의 새로운 면모를 종단 안팎에 알릴 제2종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터파기 공사를 벌여 온 천태종도 실시설계승인신청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인사 유물전시관은 총본산성

역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조사전 건립과 함께 천태종의 올 최대불사로 꼽힌다. 무엇보다 구인사가 천태종도들의 정신·신앙적 귀의처로 자리잡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기대는 투입되는 재원과 규모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물전시관은 국비와 지방비, 종단 예산 등 총 96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9백평 규모로 건립된다. 여기에 소장되는 유물은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제29' 등 지정문화재 21점을 포함해 2천6백여점에 달한다. 천태종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불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30만평 규모의 경주 산내연수원을 인수한 진각종은 수련원(연수관) 시설 확충을 위한 불사를 벌인다. 이와 관련 진각종 총무부장 해일 정사는 "수련원은 아직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불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산내연수원을 교육·수행·복지·문화타운으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존의 휴양·수련시설 외에 수행관, 납골시설, 노인복지시설, 전시관 등을 연차적으로 갖춰나갈 계획이다. 산내연수원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신교도들의 휴양을 겸한 신행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종도들의 수행과 복지도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위덕대·영덕군 관·학협정 체결

위덕대(총장 한재숙)는 5월 27일 경북 영덕군청과 관·학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위덕대와 영덕군은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사연구, 이동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위덕대는 "향후 농어촌 노인복지와 아동,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7월 본말사 주지연수 문화기획 등 5개 주제로

선각종 장흥교도소 재소자 위문

2004년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7월 7-8일 양일간 서울·경기·강원권 사찰을 시작으로 8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실시된다.

선각종 총무원(원장 정암)과 장흥 선산사(주지 법인)는 5월 21일 전남 장흥 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를 위한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사 재소자와 교정인, 선산사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극한 열불수행과 기도정진으로 과거·현재의 업장을 소멸하고 하루빨리 출소하여 희망찬 새 삶을 살기 바란다"며 "불법을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겨 늘 자신을 추스리라"고 당부했다.

종단소식

국내·외 장학선발

조계종 교육원(원장 정화)은 종단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2004년도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국내·외 정규대학 석사과정 2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으로, A4용지 5매 이상의 불교관련 보고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등 소정의 서류양식을 7월 31일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다. (02)732-4923

원장은 "향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교법을 바로 세워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불공 기간에는 가정의 화평과 조상의 극락왕생, 소원성취 등을 기원한다.

경주 자운사 개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경주 지역 포교도량인 자운사(주지 혜연)를 최근 개원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는 대웅전 낙성과 석가모니 불상 점안, 지역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열렸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들이 화합하여 경주지역 포교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총지종(총무원장 우승)은 7월 15일까지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하반기 49일 불공을 올린다. 5월 28일 총지사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우승 총리

대승종 내분 끝...종단 재정비

비상종도대회서 총무원장 해심 스님 추대



총무원 운영과 관련해 종도들의 참여를 둘러싸고 내용을 겪어 온 대승종이 최근 총무행정을 정상화하고 종단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중앙종무기관 해심으로 발생한 대승종의 내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승종은 5월 중순께 안양 만장사에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종도대회를 개최했다. 3백여 종단 소속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종단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결의하는 한편, 이를 이끌어갈 총무원장에 해심 스님(홍천 실상

사)을 추대했다. 또 원로원장에 서봉 스님(광주 아도정사), 중앙종회의장에 만춘 스님(광주 백련암)을,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에는 도일 스님(서울 동의선원)과 기현 스님(서울 흥도사)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종도대회는 중앙종무기관 해산을 주도했던 일오 스님이 총무원장직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열렸다. 전 총무원장 일오 스님은 "종단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종단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봉영 기자

이에 따라 대승종은 총무원을 흥천 실상사로 이전, 총무행정을 재개함에 이어 5월말에는 불교종단협의회와 종단대표자 명의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총무원장 해심 스님은 "작고 앞선 종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화합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종지중풍을 진작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내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하고 지역교구 총무원장의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14일 새 종정 추대

일우·혜초 스님 물망...운산 총무원장 종단개혁 선언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봉원사에서 제3차 원로회의를 열고 새 종정을 추대한다. 현재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과 원로의원 혜초 스님이 물망에 올

라 있다. 태고종 종정직은 지난해 11월 덕암 스님이 원직한 이후 결위 중이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5일 오전 10시 봉원사에서 열리

는 제88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제2창종'에 버금가는 종단개혁을 선언한다.

운산 스님은 이날 8-9일 실시되는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종도대표 특별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종단운영의 큰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총무행정 투명화와 엄격한 종현·종법 적용, 지역사찰 건립 등 종권 강화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제

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단의 규모에 비해 활동과 역할이 미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총무원의 결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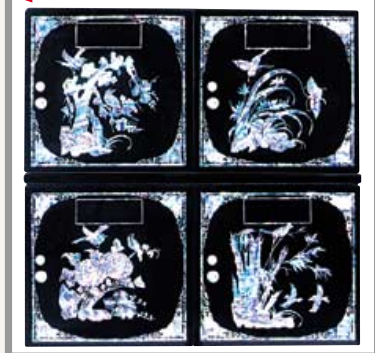
이날 종회에서는 사찰법 제정안을 포함한 종헌·종법 개정안과 2003년도 결산안, 종도대표 특별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박봉영 기자

조용수 기자

나전칠기(사군자) 공법으로 제작한 고급 모델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 장엄한 전통나전칠기공법으로 납골장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납골장의 미려함과 습기, 결로현상의 완전 제거 기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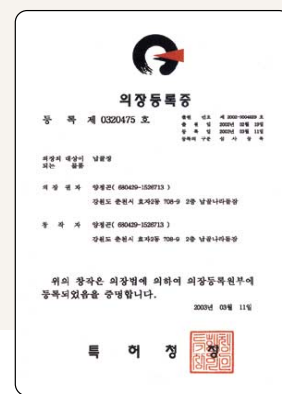


나전칠기 납골장

전국 사찰, 법당안에 납골당 설치 정당 (합헌 결정)

지장보살전, 명부전, 기존 건축물 ... 납골당 설치 가능

행정기관이 「건축 후 납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사찰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주지 임연규)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부관을 부처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집회장인 사찰에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해 그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문빈정사는 2001년 9월 29일 극락전 법당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증축한 뒤 이듬해 1월 4일 법당안에 약 900기 규모의 납골함을 설치하려고 신고를 했으나 동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조건에 위반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납골장, 납골묘 제작 시공 전문업체
 나전칠기 납골함, 위패 제작판매
 (의장등록증 발급)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8-9 2층

납골나라 돌잡 080-232-4444

H-P 011-365-0202

* 나전칠기 및 상감기법 납골장 전시관 상시운영 (연제든지 방문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나전칠기 납골장 특이사항